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북도 음성군
- 대소지역아동센터



2017. 7

1학년으로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그렇게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저 가서 애들과 잘 놀아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타 다른 활동과는 달리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 촬영, 물품 구입 등 다 해야 했다. 이에 팀원들이 만나 상의를 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실제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진행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집중을 하지 않고, 나 역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첫날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좀 더 아이들과 친해져서 더 잘 해낼 수 있었고, 마지막 날 아이들이 써준 롤링페이퍼를 보고 감동하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처음이어서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도와야하며 어떤 정도의 활동이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잘 몰라서 프로그램을 준비 및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일이 자주 없다보니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에 적응이 어렵기도 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이화봉사단 팀원들과 함께 알아서 준비해야 했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고생스러운 만큼 아이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잘 따라와 주고 선생님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순간순간이 힘들었던 시간을 하얗게 잊게 할 만큼 의미있고 보람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다른 이화봉사단 단원들과 자주 만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많이 친해졌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계획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아동센터의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활동을 끝내고 보니 이화봉사단 활동이 이번 방학의 가장 의미있던 활동 중의 하나가 된 것 같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화봉사단이 대소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의 3박 4일간의 봉사가 좋은 시작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

그동안 한 두시간씩 잠깐 활동하는 봉사를 참여 하다가, 처음으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이라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을 만나 같이 활동을 준비해보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아이들과 준비한 활동을 함께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아이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활발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며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지 조금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상의해가며 점점 아이들을 이해하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정 활동이 예상 보다 길어져 준비했던 활동을 미루기도 하였고 아이들의 실력에 맞게 준비한 활동의 난이도도 조정해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조원들과 많이 상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준비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아이들과 만나보며 저희가 초등학교 친구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아이들이 평소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못해봐서 저희를 통해 이런 활동들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달성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학생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좋은 조원들을 만나 활동하며 좋은 인연도 얻을 수 있어 정말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며 이렇게 기획하는 교육 봉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 팀원들의 도움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봉사를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였다.

첫날 아이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의 수가 많았다. 또한 생각한 것보다 목소리가 컸고 통제가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친해졌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처음의 걱정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 이어졌다.

같이 간 팀원들 모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고마웠다. 또한 기관의 센터장 선생님도 우리에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부끄럽지만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느라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아이들은 나에게 롤링페이퍼에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써주었다. 이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고 보람되었다. 준비부터 실전까지 이 봉사단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마음이 따듯해지는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매 번 봉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번 이화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소중한 선물과 같은 교훈이 나에게 주어졌다.

우선 봉사자의 겸손한 마음이다. 사범대의 특성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뿌듯함이 많아 봉사의 기회를 많이 찾았다. 처음으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마음이 맞는 팀원들이 있어 우려는 기대감이 되었다. 이에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준비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팀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구성하였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집중도 못하고, 우리를 잘 따르지도 않는 아이들이었다. 나도 모르게 지친 기색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대화가 아닌 명령을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 '내가 봉사자로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과 나의 자만한 모습을 반성하였다. 그 후 아이들을 이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찾아다니면서 보니 아이들도 진심으로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터놓아주었다. 봉사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배웠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아우성없는 외침이다. 처음의 나의 마음 탓도 있었겠지만, 다른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아이들보다 더 산만하고,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도 '이렇게 활발하다면 아이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할 때면, 소극적인 아이들은 나에게 고민거리를 가져다주었다. 아이들이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파악한 후로부터는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해주었다. 마지막 자신의 상장을 만드는 활동도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나와, 회의에서 추가된 아이디어였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네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니 기뻐하며 쓰는 친구들을 보며 뿌듯하였다. 아이들은 사랑을 구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고, 사랑을 주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다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사랑을 구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주기 위해 또 다시 나를 성장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과 같은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